考古學에 있어서 復元問題

——理論的 背景——

崔　夢　龍
(考古學科 助敎授)

一.

考古學이란 名稱은 영어로 'Archaeology'라고 하는데, 이는 Archaia(Ancient things)와 logos(theory 혹은 science)로 나뉘어진다.

즉 고고학은 단어자체가 의미하듯 '古代遺物을 硏究하는 학문'임을 알 수 있다. 즉 고고학은 과거인간이 남겨놓은 유물(遺物·Artefacts 혹은 material remains)을 통해 고대역사와 문화를 알아내는 학문으로서, 인류의 과거를 인공유물 및 인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를 맺었던 유물을 통하여 연구를 하며, 문화발전의 법칙을 알아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있다.

영국의 고고학자 그라함 크라크(Grahame Clark)는 "과거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古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The systematic study of Antiquities as a means of reconstructing the past)[1]으로서 고고학을 과거문화의 복원(reconstruction)에 중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케더린 케년(Kathleen M. Kenyon)여사는 "고고학은 그 자체가 목적(끝)이 아니고 또한 추상적인 학문도 아니다. 지상에 남겨진 유물로서 인류문화에 있어 과거의 발자취를 찾아내고 과거의 유물을 연구하는 학문"(....Archaeology is not an end in itself, not just an abstract study. It is the method of finding out about the past of the human race in its material aspects, and the study of the product of this past)[2]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고학은 유물을 통한 과거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복원이라 말할 수 있겠다.

복원이란 사전적인 용어대로 하면 조각이나 부분을 짜맞추어 본래의 형태나 모습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3] 원래의 모습인 문화에 해당되는 조각이나 부분은 경제생활(economic

1) Grahame Clark, Archaeology and Society, Barns and Nobles. New York 1965 p. 17.
2) Kathleen M. Kenyon, Beginning in Archaeology. Prager Pb. N.Y. Washington 1970 (5th printing) p. 9 또 여기에 對하여 金貞培敎授의 번역이 있다(任孝宰·李鍾宣 編, 敎養으로서 考古學, 1977 pp. 7-19).
3) Webster 3rd International Dictionary.

life)·社會·知的·精神的인 생활(soc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life)이라 할 수 있겠다.[4]

이를 좀 더 세분하면 경제생활에서 생태적 환경·생업경제 주거와 의복·교통·무역등으로 나뉘어지며, 사회적·지적·정신적인 생활에서 사회제도·언어·문자 예술·주술·과학과 우주관·종교 전쟁·법률과 도덕·문화의 운반자와 접촉과 변화 등등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고돈 차일드(Gordon Childe)에 의하면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는 인간의 행위로 부터 결과된 물질계에 있어 변화이며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행위의 화석화된 결과"(The fossilized result of human behavior)[5]인 것이다.

화석화된 인간행위의 결과는 빈포드(Lewis R. Binford)에 의하면 기술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Technomic 유물, 사회적인 유물(Socio-technic) 그리고 마지막의 정신적 유물(Ideo-technia)의 셋으로 압축된다.[6] 첫째의 Technomic은 실리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것은 계급이나 신분을 의미하며, 정신적인 것은 집단 성원을 의미하는 상징이나 훈장같은 것을 의미한다.

西谷正은 復元이란 項에서 "발굴된 유적·유물은 그대로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되었던 당시의 형태대로 복원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복원을 재구성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 취급한다면 고고학의 제작업은 통털어 복원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복원이라고 하면 형태적인 복원 즉 유적·유물의 복원을 의미한다"[7] 라고 복원의 물질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大井晴男도,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구·유물 등은 원상 그대로 발견되는 것은 적고 대개의 경우 다소 파손된 형태로서 발견된다. 그와같은 유구·유물 등으로 부터 원상을 추정하여 그림 혹은 실제의 유물 등을 사용하여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을 복원이라고 한다…"[8]라고 말하면서 西谷正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과거를 복원하기 위해 고고학적인 자료를 잘 이용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여겨져 왔다.

재론하면, 고고학의 목적으로서 '文化史의 복원', '과거 생활양식의 복원' 그리고 '문화과정의 연구(The study of cultural process)'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9]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인 西谷正이나 大井晴男 교수들의 復元에 대한 정의는 유구나

4) Graham Clark, Ibid pp. 219-249.
5) V. Gordon Childe, A Short Introduction to Archaeology. Coller books (AS 240v) 1962 p. 9.
6) Lewis R. Binford, "Archaeology as Anthropolpgy", An Archaelogical Perspective, Seminar Press New York and London 1972, pp. 20-32.
7) 水野清一·小林行雄, 圖解考古學辭典, 創元社, 1959. pp. 851-2.
8) 世界考古學辭典(上), 平凡社, 1979. p. 956.
9) Briam M. Fagan, In the Beginning: An Introduction to Archaeology, Little Brown Co. 1978 (3rd ed) p. 15.

유물의 물질적인 복원에만 관계되고 있을 뿐 정신적인 면이나 또 빈포드(Binford)를 위시한 미국의 신고고학자(New Archaeologist)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문화과정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 조그만 글에서 복원에 관하여 다룰 수 있는 여러가지 면을 생각나는데로 기술해 보고자 하나, 글의 성격상 산만함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점 독자의 양해를 구해둔다.

二.

우리는 공동의 지역에 살고 공동의 물질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언어·종교·좋고 그른 것에 대한 가치관·예술·종교 무형의 특징에 대한 선택같은 점 등을 공유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와같은 비물질적인 문화적 요소들이 선사고고학자들에 의해 완전하게 복원되고 있지 않으나, 그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인 혹은 비물질적인 양상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이 베풀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고학은 고민족학(palaeo-technology)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 주의해 두어야 할 것은 고고학에 있어서 문화란 민족학자들이 서술하고 있는 문화와 대비시켜 볼 수는 있으나 꼭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10]

예로 어빙·라우즈(Irving Rouse)교수가 해 놓은 民族에 대한 복원[11]을 보기로 하자.

어빙·라우즈교수는 민족에 대한 복원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의 4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의 항목을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거하였다.

'누가'라는 항목의 민족의 분류는 문화적인 특질들에 의존한다. 문화란 foci라고 불리우는 최종의 단계이며, 이 foci는 '컴포넌트의 집합체'(group of component)이며 또 고든 차일드가 이야기하는 "문화란 유물 복합체(Assemblage of artefacts)"[12]와 꼭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민족이란 문화적인 특질(traits)로서 구분되는 것이다.

다음 '언제'라는 항목은 어떤 민족이 어느때에 있었는가를 보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편년(regional chronology)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지역과 시간을 제한하고 또 지역을 소단위인 구역(area)으로 세분화시켜 이에 알맞는 편년적인 순서를 만듦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세번째의 '무엇'이란 항목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증명된 민족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선사시대의 민족지학이라고 불리울 만큼, 유추를 해서 당시 민족이 만들어낸

10) Frank Hole and Robert F. Heizer, Prehistoric Archaeology: A Brief Introduction, Holt, Reinhalt and Winston, 1977, p. 81.

11) Irving Rouse, "People in Prehistory", Introductory Readings in Archaeology ed. by Briam M. Fagan. Little, Brown and Co. Boston. 1970, pp. 278-297.

12) V. Gordon Childe, op. cit. p. 15.

문화 즉 'foci'(유물복합체)를 찾아냄으로써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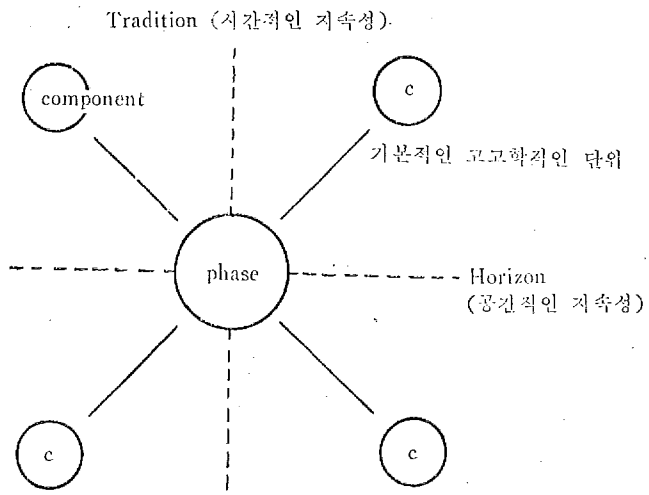
다음 네번째 항목은 '어떻게'라는 것인데, 이는 문화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구하여 발전단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민족에 있어 복잡성의 변화나 변화에 따른 문화양상을 추구함으로서 가능하다.

여기에는 문화의 전파(diffusion), 독자적인 발생, 발명(invention)과 진화(evolution)등의 파악이 중요하다.

이와같이 고고학적자료를 기본단위로 하여 문화 또는 발전단계를 설정하고, 그 민족이 해온 행위를 복원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문화발전단계(stage)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 특질에 의해 대표되는 시간적·공간적 지속성'으로 考古學的 文化의 時·空개념을 모두 포괄하여 종합한 문화의 최종단계로, 이의 개념은 미국의 고고학자인 고돈·윌리와 필립스에 의해 완성을 보았다. 즉 이것은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component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phase 단계를 거쳐 이것이 時間(tradition)과 空間(horizon)的인 개념을 포괄하여 이루어진 최종의 문화단계를 의미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신대륙의 고고학을 'Lithic' 'Archaic' 'Formative' 'Classic' 'Postclassic'의 다섯개의 문화발전 단계를 설정하였다.[13]

이들 다섯 문화발전단계는 시간과 문화내용에 있어 차이가 많지만 구대륙고고학의 구석



Component, Phase, Tradition, Horizon의 관계를 표시한 圖解
(Gordon Willey and Philip Philips Ibid. p. 41)

13) Gordon Willey and Philip Phillips, Method and Theory in American Archaeology, The Univ. of Chicago Press 1958(7th) pp. 72-78.

기(Paleolithic)·중석기(Mesolithic)·신석기(Neolithic)·청동기(Bronze)·철기(Iron age)시대의 다섯문화단계와 대비해 볼 수 있다.

三.

考古學에 있어서 복원문제는 신고고학의 발달이후 몇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즉 behavioral archaeology(行爲考古學), ethnoarchaeology(民俗 또는 民族誌學的 考古學) 그리고 technological experiment(技術的인 實驗) 등이 그것이다.

첫째 신고고학(New archaeolgy 또는 processual archaeology)이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과거에 이루어진 여러가지 행위의 변화를 복원하는데 있어 방법과 원리를 고안하는데 중점을 두는[14] 데 비해 행위고고학은 이러한 원리를 다시 통합하기 위해 제공되는 원칙·행위·관심의 특별한 배열이며 여기에 나타나는 주된 고고학적 문제는 모든 時·空에 걸쳐 인간의 행위와 물질문화 사이에 있어 관계인 것이다.[15]

이 행위고고학은 전략과 방법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 낼 수 있는데, 연구전략은 "과거의 연구를 위해 유용한 법칙을 얻기 위해 현재의 물질문화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의문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여기에는 소위 실험고고학·행동고고학(action archaeology)·民俗考古學·현존생활고고학(living archaeology) 등 다양한 용어가 표현되고 있다.

그중 앞서 언급한 民俗 또는 民族誌學的 考古學은 고고학상 나타나는 유물의 해석에 있어 民族誌學的인 類推現狀이 뒷받침되는, 다시말하여 고고학적인 유물을 민족지학적인 자료에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종합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16]

또 실험고고학은 S.A. 세메노프(Semenov)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석기의 사용흔을 추정하여 당시의 제작기술 등을 알아내는 것으로 민족지학적 자료나 현미경 등이 중요한 도구가 된다.[17]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民族學(ethnology)이나 民族誌學(ethnography) 그리고 이들에서 비롯한 類推現狀 등이 고고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고학이 민족에 관한 학문 즉 민족학"[18]이라 불리울 정도로 고고학은 직접 역사적인 접근(direct historical approach, 여기에는 마야, 잉카 등 아메리카 인디안 문화가 해

14) Michael B. Schiffer, Behavioral Archaeology, Academic Press. New York. 1976, p. 2.
15) op. cit. p. 4.
16) Christoper B. Donan and C. William Clewlow ed., Ethnoarchaeology, Monograph Ⅳ. Institute of Archaeology.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1974, pp. 3-11 및 崔夢龍譯, 都市의 起源, 白鹿出版社 1977, p. 55.
17) S.A. Semenov, Prehistoric Technology. Translated, and with a Preface by M.W. Thompson. Barnes & Nobles, INC. 1973. p. 2.
18) K.C. Chang, "Major Aspect of the Interrelationship of Archaeology and Ethnology", Current Anthropology Vol. 8, No. 3 1967 p. 233.

당된다)이나 민족학적 유추(ethnological analogy) 방법 등을 이용함으로서 민족학과 관계가 깊다.

類推(analogy)는 구체적인 역사적 유추(specific historical analogy 혹은 ethnographic analogy)와 보편적인 비교유추(general comparative analogy)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인간의 문화적 행위에 관한 비교적으로 보편화된 관찰과 일반성을 띠는 것이어야 한다. 즉 이를 두가지의 결합이 고고학적인 자료의 올바른 해석과 복원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것이다.[19]

이러한 유추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핀 Ascher의 글을 들 수 있겠다.[20]

그는 고고학자들의 작업을 4가지로 나누어 ① 개념의 공식화와 정리, ② 자료수집 및 처리, ③ 자료의 해석과 ④ 종합으로 보았다. 그런데 세번째의 자료의 해석에는 유추가 이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① 역사적기록, ② 현존 살아있는 집단, ③ 민속—문화의 접근(구대륙), ④ 직접적인 역사적 접근(신대륙)의 네가지가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또 가장 좋은 해석을 위해서는 첫째 가장 알맞는 자료의 선택, 두째로는 民族誌의 利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존 살아있는 집단에서 얻어지는 일련의 자료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전통적인 문화사적(culture history)인 입장이던 또는 가설을 내세워 입증하는 신고고학(New 또는 processual 또는 systemic archaeology)이든 간에, 민족학적인 유추현상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고고학의 복원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四.

타일러(Walter Tylor)의 새로운 고고학적인 방법론의 표현인 "전후관계에서 본 기능적인 접근"(contextual-functional approach) 다시 말하여 유명한 "결합적인 접근"(conjunctive approach)이란 용어가 1948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21]

그 내용은 종래에 해오던 고고학적인 편년위주의 연구방식을 지양하고 특정한 문화전체에 있어서 존재하는 상호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발견되는 기본적인 자료를 다른 문화와 비교하고 또 분류적인 범주에 넣어 총체적으로 종합화하려는 시도로서, 이는 그 다음에 오게될 고고학연구에 있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타일러의 시도가 있고 난 후의 고고학계는 크게 두가지 경향을 띠게 되었다. 즉

19) (註 13) p. 227-243. 여기에 대한 간결한 코멘트가 Gordon Willey and Jeremy Sabloff의 A History of American Archaeology (W.H. Freeman and Co. San Francisco. 1974. pp. 206-8)에 실려 있다.

20) Robert Ascher, "Analogy in Archaeology", Introductory Readings in Archaeology ed. by Brian M. Fagan. Little Brown and Co. 1970, pp. 347-356.

21) Walter Tylor W., A Study of Archaeology. Arcturus Books No. 69, Southorn Illinois Univ. Press 1968 (2nd printing) p. 5.

구고고학(old archaeology)대 신고고학(new archaeology)[22], 文化史(culture history)대 과정고고학(processual archaeology), 歷史的인 時代(historical period)[23]대 설명적인 시대(explanatory period)[24] 그리고 文化史(culture history)대 문화과정(culture process)[25] 등등의 대비가 바로 그것이다.

대비되는 두가지 용어는 미국고고학계의 특성을 잘 나타낸 것으로 전자는 전통적인 것으로서 역사적사건·기술·편년에 입각하여 연구해 나가고, 후자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빈포드(Binford)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가설을 세워 입증해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입증을 위해 컴퓨터와 같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응용하고 또 문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또 일반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여기에는 체계이론(system theory)도 포함되고 있을 정도로 이는 오늘날 미국 고고학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두 경향의 학문적인 연구방법·특징을 표로써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26]

내 용	구 고 고 학	신 고 고 학
1. 학문적 원리	역사의 한 특수한 분야로서 정의된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떠한 사건의 기능과 결과로서 여겨진다. 고고학자의 임무는 여러가지의 흩어져 있는 사실들을 모아 그로부터 과거의 사건이나 지나간 생활방식을 복원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사건의 복원은 흩어져 있는 자료의 수집에 의해 이루어진다.	과학으로서, 물리·생물학·인류학·사회학·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도 이에 포함된다. 설명이나 개념에 있어 논리적인 유형이나 구조를 갖으며, 자료는 문화과정을 회상시키는 특별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2. 바람직한 목적	보고서는 한 지역의 역사나 한 유적의 역사적인 복원을 포함한다.(가장 복잡한 골동품 수집).	관찰된 사건의 행위나 문제의 학문이 관련된 유물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인간행위의 경향과 원인을 찾고 가능한 한 가설을 내세우기 위해 다이내믹한 문화에 있어 법칙을 만드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3. 문화의 개념	문화란 특질, 질적인 특성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된다.	문화는 인간의 사회적·생태적 환경에 대한 유기체외적인 적응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적·사회적·정신적인·전체적인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2) Paul S. Martin, "The Revolution in Archaeology", Contemporary Archaeology: A Guide to Theory and Contribution ed. by Mark P. Leone 1972, pp. 5-13.
23) Gordon Willey and Jeremy Sabloff, op. cit. (註 19) chapter 5 and 6.
24) Frank Hole and Robert Heizer. op. cit (註 10) p. 246.
25) Kent V. Flannery, "Culture History vs. Cultural Process: A Debate in American Archaeology". Scientific American Vol.217 No. 2 1967, pp. 119-122.
26) Paul S. Martin, op. cit. (註 22) pp. 11-12.

4. 이용되는 방법	귀납적. 우연한 유물의 수집이며 과거의 문화나 사건을 복원하는 이외에 목적이나 가설을 세우지 않음.	연역적. 가설이 연역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된다. (연역적인 방법으로 인간행위에 관한 가설을 만들고 입증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컴퓨터나 자연과학적인 방법도 이용된다)

이상의 표에서와 같이 구고고학이던 신고고학이던간에 인간의 과거사건이나 문화를 복원한다는 고고학의 명제에 방법론이나 응용과학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구태여 차이를 지적하라면, 구고고학이 기술적이며, 선사시대의 생활양식을 유형이나 시간적인 편년에 의거해서 복원하는 것이라면, 신고고학은 조직적인 상관관계나 오랜동안의 변화와 과정을 추구해나가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五.

복원에는 ① 과거에는 어떻게 했던가 ② 또 어떻게 아는가 라는 개념이 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념파악에는 우선 '文化'(culture)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표는 과거 선사시대인들의 행위의관계와 유형화(behavioral levels and patterning)를 보여주고 있다.[27]

개 인 (individual)	+ 屬 性 (attribute)	= 유 물 (artefacts)	∴ 속성의 유형화는 개인 행동의 유형을 반영한다.
집 단 (group)	+ 유 물 (artefacts)	= 亞遺物複合體 (subassemblage)	∴ 유물의 유형화는 집단의 행위를 반영한다.
공 동 체 (communities)	+ 亞遺物複合體 (sub-assemblage)	= 유물복합체 (assemblage)	∴ 亞遺物複合體의 유형화는 공동체의 행위유형을 반영한다.
사 회 (societies)	+ 유물복합체 (assemblage)	= 고고학적문화 (archaeological culture)	∴ 유물 복합체의 유형화는 사회행위의 유형을 반영.

표에서 보이는 속성·유물·아유물복합체·유물복합체와 그에 따른 개인·집단·공동체·사회의 결합은 앞서 2장에서 언급했던 어빙 라우즈의 "一群의 특질이나 컴포넌트" 또는 고든 차일드의 "유물복합체"란 용어보다 일층 발전된 것임을 보여준다.

즉 고고학적인 문화는 사회와 유물복합체와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Gordon Willey와 Phillips의 "유적(site)—小區域(locality)—區域(region)—地域(area)의 空間的인 구성"[28]이나 "문화적 특질이나 유물복합체로 대표되는 'phase'의 편년

27) James Deetz. Invitation to Archaeology, American Museum Science Book B. 16 1967, pp. 106-7.

28) Gordon Willey and Philip Phillips, op. cit. (註 13) p.25.

적인 시간적 구성"[29](2장의 表參照)에 비추어 볼 때, 고고학적 유물을 기본으로 하여 時·空에 걸쳐 존재하는 문화체계의 올바른 본질을 파악해 낼 수 있는 발전된 것이다.[30]

이렇게 복원해 낼 수 있는 문화의 개념은 고고학상의 이론변천에 따라 그 모습을 약간씩 달리한다.

고고학의 이론은 진화론(evolutionism)→전파론(diffusionism)→수정전파론(modified diffusionism)→생태학(ecology)과 신고고학(explanation)→체계이론(systems theory)의 순으로 바뀌어오고 있는데[31] 최근의 이론경향은 생태학·신고고학·체계이론의 결합과영향하에 나타나는 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六.

복원에 관계된 개념들로서 ① 고고학적인 자료(archaeological data) ② 동일과정설(uniformitarianism) ③ 민족지학적 유추(ethnographic analogy) ④ 문화체계(culture system) ⑤ 모델을 들 수 있겠다.[32]

고고학적 자료로는 조직에 관계되는 속성, 분포, 규모, 수, 공간적인 배열, 상하의 계층화 등으로 이들은 체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며, 量的인 자료를 가지고 질적인 분석을 유도해 내고 또 사회조직등을 알아내는데 있어서도 이들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중 양적인 고고학적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 당시의 사회조직을 밝혀내는데 성공한 사례는 미국의 신고고학자들의 중요한 업적으로 들 수 있겠다.

그중 제임스 데에츠(James Deetz)는 사우드 다고타(South Dakata)주 미조리 계곡에 살고 있던 아리까라(Arikara)족의 사회조직의 변화를 발굴된 토기편에 나타난 문양의 변화로 알아내었다. 즉 토기의 제작은 여자쪽이고 또 그들의 생활이 모계와 母處居住(matrilocal residence)였는데 부족의 남자들이 타코다주의 인디안과 유럽인들과 접촉하여 총과 말의 교역에 있어 중간상인으로 활약하게 되어 이러한 변화가 모계계통으로 내려오던 토기의 문양과 양식에 변화를 주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교역의 결과로서 그들 사회가 모처거주에서부터 부처거주와의 혼합된 사회조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앞서 5장에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속성이나 유물의 유형화는 개인이나 집단행위의 유형을 반영한다는 것이다.[33]

29) Op. cit. pp. 21-22.
30) 이러한 시도로서는 일찌기 MacKern, W.C.에 依해 이루어 졌으며, 그에 의한 순서는 component-foci-phase-aspect-pattern-base로 마지막 base가 분류할 수 있는 최후의 항목인 것이다. ("The Midwestern Taxonomic Method as an aid to Archaeological Culture Study", American Antiquity 4, 1939, pp. 301-313.
31) Brian M. Fagan, People of the Earth: An Introduction to World Prehistory (2nd ed.) Little, Brown Co. 1977, pp. 17-22.
32) Frank Hole and Robert Heizer op. cit. (註 10) chapter 4.
33) James Deetz, The Dynamics of Stylistic Change in Arikara Ceramic, Ilinois Studies in Anthropology No. 4, 1965.

또 윌리암 롱에이거(William Longacre)의 아리조나주 콜로라도강 유역에 있는 카터렌치(Carter Ranch)의 유적조사를 들 수 있겠다. 이 유적은 서기 1050~1200년 사이에 존재했던 Pueblo Ⅲ 文化에 속하는 유적으로서, 그는 이곳에서 39개의 방과 남자들의 클럽하우스인 kiva를 조사하여 175개의 문양요소를 찾아내 이를 통해 북쪽에 있는 무덤이 북쪽의 방들과 남쪽에 있는 무덤이 남쪽의 무덤들과 연결되고 가운데 있는 무덤군은 양쪽의 요소를 혼유하고 있는 신분이 높은 피장자들의 무덤으로 밝혀내고 있다.[34]

또 다른 실례로는 토기의 유형을 분석하여 방의 기능을 파악한 제임스 힐(James Hill)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Hay Hollow에 있는 서기 1150~1280년에 속하는 Broken K. Pueblo 유적을 조사하여 그중 46개의 방과 16개의 토기형식을 'factor analysis'를 통해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세가지 기능의 방 즉 거실·저장고·의식용의 방인 키바(kiva: 일반적으로 퓨에블로족의 지하방으로 남성들의 클럽하우스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종교적 의식이 행해졌다.)로 나뉘어짐을 알아내었다.[35]

여기에서 잠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것은 type(型式)과 社會組織(social organization)과의 관계인데, Albert Spaulding의 이야기대로 "형식은 속성의 일관된 복합체를 보여주는 유물의 집단이며 여기에 결부된 성질들이 특징있는 유형을 보여준다 하겠다."[36]

즉 형식이란 속성들의 결합이며 이러한 형식들이 유형을 이루면 개인이나 사회의 행위를 반영하게 되고 또 사회조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앞서 5장에서 이야기한 James Deetz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 다른 관계되는 개념중의 하나는 지질학자인 James Hutton의 동일과정설인데, 이는 地質學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지질변화는 균일한 힘이나 일정한 요소의 계속적인 작용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 지구가 형성되었다는 개념이 인간에 적용되며 이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직면했을때 기본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취한다는 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의 '민족지학적 유추'는 앞서 3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고학적 복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실제 이러한 유추를 직접 이용할 때 양자간에 있어 시간적인 선후관계, 사회문화적관계, 생업경제, 공간적인 제한, 언어의 유사, 보수적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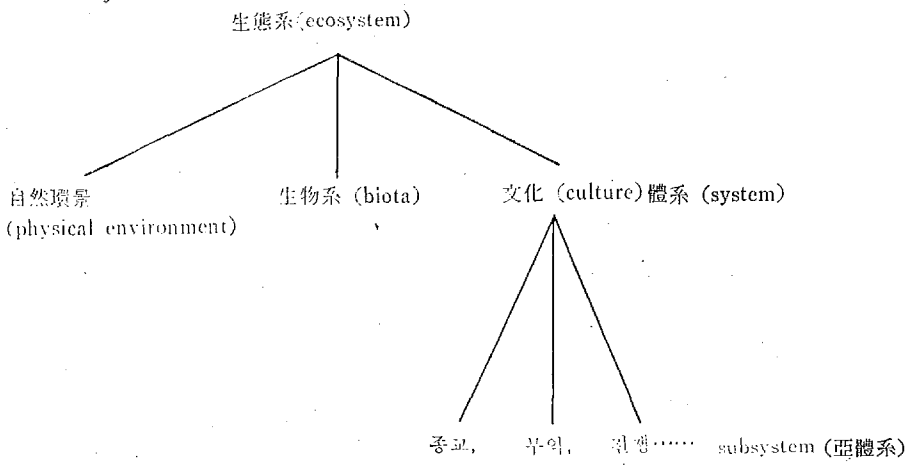
다음 네번째의 문화체계(culture system)는 생물의 체계에 있어서와 같이 사물과 속성과

34) William Longacre, Archaeology as Anthropology.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1970.
35) James N. Hill, Broken K. Pueblo: Prehistoric Social Organization in the American Southwest. University of Arizona Anthropological Papers No. 18, 1970.
36) Albert, C. Spauding, "Statistical Techniques for the Study of Artefact Types" American Antiquity 18:4, 1953 pp. 305-313.

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문화란 체계적이며 여러가지 사회제도·기술·종교와 같은 서로 상당히 상호관계에 있는 아체계로 이루어 진다. 이는 생물(biota)계와 자연환경(physical emvironment)과 마찬가지로 또하나의 커다란 생태계(ecosystem)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체계이론하에서 문화자체도 환경에 적응하고 또 상호밀접한 관련을 맺어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37]

문화와 자연환경화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James Deetz에 의하면 문화는 ① 학습된 것이며 ② 인간에게 유일한 것이며 ③ 유형화되며 ④ 문화의 매개체로서 사회가 존재한다[38]고 네가지 개념을 나열하였는데 여기에 진화론의 적자생존의 개념와 같이 '적응'한다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이는 생태계의 상호적응체계 다시 말하여 인간이 자연환경과 생물계에 적응하여 살아남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적응의 결과인 문화를 유지·발전해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모델의 개념은 선사시대를 이해하는데 없어서 안되는 것으로 구대륙의 구석기·중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와 신대륙의 Lithic, Archaic, Formative, Classic, Postclassic의 다섯 문화발전단계의 용어에서와 같이 스스로 어떤 생각이나 문화내용을 대표해주는 표식과 같은 것이다.

七.

이상 두서없이 나열한 복원에 대한 개념이 최근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보기로 하자.

37) R.H. Thompson and W.A. Longacre., The Univ. of Arizona Archaeological Field Shool at Glasshopper, East Central Kiva' 31, 1966, pp. 255-275. Sanders and Price, Mesoamerica: the Evolution of Civilization, Random House, New York 1968, p. 171 및 崔夢龍, "都市·文明·國家"—美國考古學研究의 一動向—歷史學報 92輯, 1981, p.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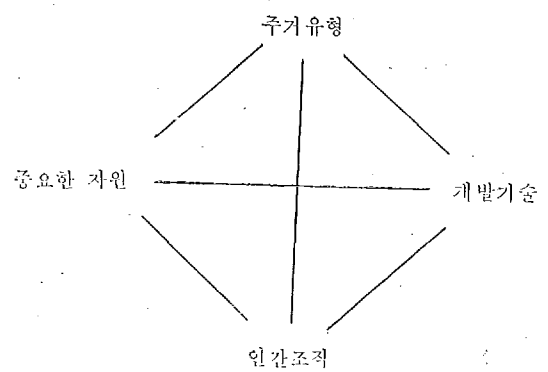
38) James Deetz op. cit. (註 27) pp. 5-7.

커다란 생태계의 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조그만지역의 생태계 다시말하여 인간·자연환경·생물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마이클 쿠(Coe)와 프레너리(Flannery)의 microenvironment의 개념을 들 수 있다.[39] 이말은 멕시코 퓨에블라 떼우아칸계곡(Tehuacán valley)의 경우같이 유적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근처의 뚝·강·삼림을 포함하는 조그만 자연환경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고고학자들은 당시의 인간—자연과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근동지방에 있어서 식량자원의 개발과 촉진과정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미(Mesoamerica)의 Archaic 시대에 있어서 식량개발은 "식량채집의 계절적인 계획"(seasonal scheduling)에서 비롯된 것이며[40] 근동지방의 경우 광범위한 시야의 식량채집(broad spectrum)에서 발전한 '한두가지 식량의 집중적인 개발'(narrow spectrum)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41]

이러한 복원들은 과거 인간들이 커다란 생태계의 자연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여 밀·보리·옥수수·염소 등 몇몇의 경작물과 동물을 길들이고 개발하여 사육화 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 '주거지의 유형'(settlement pattern)을 중요한 복원의 문제로 들 수 있겠다. 주거지는 "고고학적 문화의 기능적인 해석을 위한 전략적인 교두보"(strategic starting point for the functional interpretation)이며[42], "사회관계라는 테두리 속에서 고고학적 자료를 연



주거유형과 공존하는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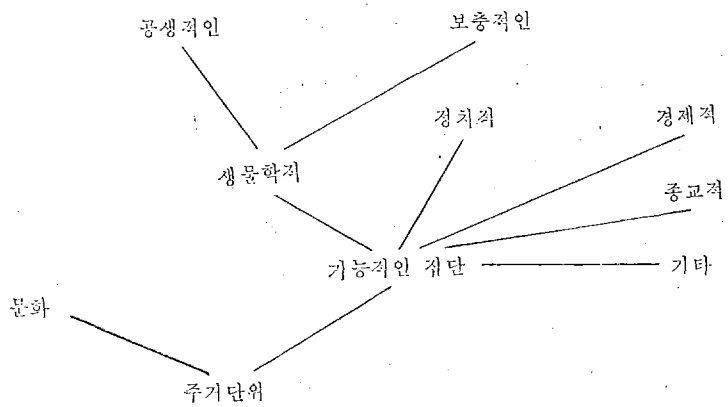
39) Michael D. Coe and Kent V. Flannery, "Microenvironment and Mesoamerican Prehistory" Science 143, 1964, pp. 650-654.

40) Kent V. Flannery, "Archaeological Systems Theory and Early Mesoamerica" Anthropological Archaeology in America ed. by Betty J. Meggers Washington D.C. 1968, pp. 67-87.

41) Kent, V. Flannery, "Origins and Ecological Effects of Early Domestication in Iran and the Near East" The Rise and Fall of Clvilizations ed. by Lamberg-Karlovsky and Sabloff 1974 pp.245-269.

42) Gordon Willey, Prehistoric Settlement Patterns in the Viru Valley, Peru. Bulletin 155 Smithonian Institute, 1953.

주거단위들의 상호관계



구"[43]하는 대상인 것이다.

다음 K.C. Chang 교수가 만든 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지의 연구는 앞서 언급된 식량획득·개발에 있어서와 같이 생태적인 환경하에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주거지는 생업경제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소위 주거고고학연구는 인간—토지관계의 생태학적인 관심에서 출발하며, 결과적으로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적응(adaptation)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하고 있다.[44]

또 주거고고학에 있어서는 인구학·기술·종교·전쟁·사회조직——이 경우에 핵가족·확대가족·모처거주 또는 부처거주 등등—— 토지의 생산능력과 감퇴 등이 부수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중 기술은 ① 경제적인 전문성의 증가 ② 생산효과의 증가 ③ 새로운 행위 즉 군사전쟁·의식·레크리에이션 등의 정교화 등에 영향을 준다.[45]

주거지의 규모로서, 마을(0.6~6hr)—읍(6.1~25hr)—도시(50hr 이상)의 발달상이 수메르(Sumer) 문명초기에 보여 이들 주거지의 유형은 상하계급의 발달에 따른 도시(urban, city)의 성립과 문명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다.[46]

무역은 당시의 사회생활·신분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사치스런 외국제의 물건은 보통 추장(chiefdom)사회부터 나타나는 신분의 상징(status symbol)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것들이 무덤의 부장품으로 사용될 때에는 신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근동지방이나 중남미의 경우 흑요석(obsidian)제 칼이나 거울·옥 등이 이러한 신분의 상징으로 되고 있고 또 청동제품·호박(amber) 등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

43) K.C. Chang, Settlement Pattern in Archaeology. An Addison-Wesley Module in Anthropology Module 24 1972, pp. 1-26.
44) Frank Hole and Robert Heizer op. cit. (註 10) p. 291.
45) Ruth Whitehouse, The First Cities. Phaidon London 1977.
46) Adams R. Mac and H. Nissen, The Uruk Countryside. Univ. of Chicago Press. 1972.

물 다시 말하여 조개·흑요석·호박 등은 그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생산의 중심지 또는 무역의 루트도 파악할 수 있다.[47]

또 그러한 연구로서 미국 중부 Ohio, Illinois, Michigan, Wisconsin주에 걸쳐 서기전 300년 부터 기원후 700년 까지 소위 burial mound Ⅱ 文化期에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광범위한 장거리 무역루트와 악어·거북껍질·은·구리 등의 무역을 통해 얻어진 고고학적 자료를 결부시켜 "Hopwellian Interaction Sphere"란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 지게 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48]

아마츄어적이긴 하지만 놀웨이의 탐험가겸 과학자인 토르 헤이어달(Thor Heyerdahl)이 실시한 콘티키(Kon-Tiki)와 라(Ra)號의 탐험조사를 들 수 있다. 그는 고대 잉카의 문화가 페루에서 타이티섬까지 미치며 아프리카와 중남미지역 사이의 문화접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접 실험하기 위하여 갈대배로 1947과 1969~70의 두번에 걸쳐 항해하였는데 모두 성공하였다.[49]

지식에 대한 복원의 대표례로는 최근 우주고고학(astro-archaeology)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분야 즉 스톤헨지(Stonehenge)와 같은 거석기념물에 천체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태양과 달의 운항, 월식 등과 관계가 있다는 Gerald Howkins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50]

八.

이상 본바와 같이 고고학에 있어서 복원문제는 생각 이상의 광범위한 것으로 깨어진 토기조각을 접착제를 사용해 붙여 완전하게 복원하거나 주거지를 원상대로 복원하는 물질적인 복원에 관계된 것 뿐만 아니라, 주거지, 장거리 무역에서 얻어진 고귀품들, 무덤에서 출토한 부장품등의 고고학적인 유물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사회조직·정신적인·지적인 생활의 복원까지도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복원하건, 또는 신고고학의 경향인 체계이론을 응용해 생태계에 있어서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해 나타나는 결과를 복원하든 간에, 과거 우리조상이 남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물을 통해 당시의 생활환경을 완전하게 복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고고학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1982. 3. 18).

---

47) J.E. Dixon, J.R. Cann and Colin Renfrew "Obsidian and the Origins of Trade" Scientific American, 1968. 3.

48) Stuart Streuver and Gail L. Houart, "An Analysis of the Hopewell Interaction Sphere" Anthropological Paper. Michigan 1972 pp. 47-79.

49) Thor Heyerdahl, Kon-Tiki (1948) Aku-Aku (1972, 15th printed) The Ra. Expedition (1973 2n printed): Penguin books.

50) Gerald Howkins. Stonehenge Decoded. A Delta book Dell. Pb. Co. 1965.

《Abstract》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Concepts of Reconstructing the Past"

Mong-Lyong Choi

The goal of archaeology can be traditionally defined as 'the systematic study of antiquities as a means of reconstructing the past' (Grahame Clark) and as 'the method of finding out about the past of the human race in its material aspect and the study of the product of this past' (Kathleen Kenyon) forming culture-historical point of view whose thoretical background lies in the chronological order and the specific description of culture events.

But the recent trend of archaeological study has been changed since Lewis Binford had proposed so-called 'New Archaeology' in 1960s whose theoretical background lies in the revelation and explanation of cultural process, and the general systems theory with the help of logico-deductive reasoning and computer-based simulation.

As Gordon Willey mentioned earlier, 'American archaeology is anthropology or it is nothing' which means that American archaeology is one kind of social science like anthropology.

The reconstruction of the human past can be achieved not only from the establishment of chronological order and specific description of cultural events, but also from the explanation of cultural process and the fossilized behavior patterns of the human race shown as a result of human adaptation to physical environment and biota forming large ecosystem.

Either do we apply 'direct historical approach', 'ethnographic analogy' or 'microenvironment approach' or any kind of new metho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human past, the real goal of archaeology should be formed from the synthesizing, comparision and interpretation of various aspects of culture traits. Recently we use any kind of method for archaeological data regardless of new or old Schools.